

여자골프 메이저 개막...고진영·김아림 등 출격

여자골프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총상금 800만 달러)이 24일 막을 연다.

세브론 챔피언십은 미국 텍사스주 우들랜즈의 더 클럽 칼턴 우즈의 잭 니클라우스 시그니처 코스(파72)에서 펼쳐진다.

여자골프 5대 메이저대회 중 가장 먼저 열리는 대회다.

세브론 챔피언십은 2021년까지 ANA 인스피레이션이란 명칭으로 열리다가 2022년부터 개최 장소와 명칭이 모두 바뀌었다. 다만 우승자가 물속에 뛰어든 세리머니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 선수로는 고진영, 유해란 등 17명이 출격해 우승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최근 막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에 오르며 예열을 마쳤다.

또 지난해 이 대회에서 단독 5위를 차지한 유해란도 시즌 첫 승을 노린다.

한국 선수의 최근 메이저 우승은 지난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양희영이다.

세계 1위 코르다·세브론 챔피언십 2연패 도전

김아림 파워랭킹 7위...윤이나 메이저대회 데뷔



고진영이 2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G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최종 라운드 1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세브론 챔피언십 우승은 ANA 인스피레이션 시절인 2020년 이미림

이 마지막으로, 고진영은 2019년 정상에 오른 적이 있다.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1위(41점)를 달리고 있는 김아림도 이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힌다.

미국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세브론 챔피언십 우승 후보 순위를 매긴 파워랭킹에서 김아림을 7위에 올렸다. 고진영은 11위, 김효주는 14위로 평가됐다.

김아림은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2023년 공동 4위, 2024년 공동 9위에 오른 바 있다.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윤이나는 처음 메이저대회에 문을 두드린다. 현재 신인상 부문 공동 6위인 윤이나가 세브론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면 단숨에 1위 탈환도 가능하다.

우승하면 신인상 포인트 300점을 받는데, 1위 다케다 리오(일본)와 윤이나의 포인트 차이는 243점이다.

세계랭킹 1위 벨리 코르다(미국)는 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코르다를 파워랭킹 1위로 올렸다.

코르다의 대항마로는 지노 티파곤(태국), 에인절 인, 릴리아 부(이상 미국),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이 꼽힌다.

광주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전 단체 응원전

26일 오전 1시30분 조선타 해오름관

창단 이래 최초 ACLE 8강 진출...역사적 순간 공유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2024~20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진출.

창단 이래 최초로 아시아 최고 무대인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전에 오른 광주FC의 사

우대 원정 승리를 위해 단체 응원전이 열린다.

광주FC는 26일 오전 1시30분(한

국 시각) 광주FC의 ACEL 사우디 원정 8강전에 맞춰 광주스포츠경기장인 조선타 해오름관에서 단체관람응원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응원전은 현지에서 직접 응원하러 가지 못한 광주시민과 팬들이 모여 구단의 ACLE 8강 도전을 응원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영화관 단체응원을 추진키로 하고 수요 조사에 나섰으나, 함께 응원하고 싶다는 시민과 팬들의 규모가 500여 명을 넘어서자 1000명 수용이 가능한 광주스포츠경기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광주FC 관계자는 "ACLE 8강 진출은 구단과 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응원전은 늦은 시간임에도 축구에 대한 열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FC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024~2025 ACLE 8강까지 진출하며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김도기 기자

김혜성, 3경기 연속 안타에 도루까지...타율 0.264

미국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뛰며 빅리그 진입을 노리는 김혜성(LA 다저스)이 안타에 도루까지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다저스 산하 트리플A 팀인 오클라호마시티 코메츠 소속으로 뛰는 김혜성은 23일(한국 시간) 미국 유타주 사우스조던의 더 볼파크 옛 아메리카 퍼스트스퀘어에서 열린 솔트레이크 비스(LA 에인절스 산하)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도루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열린 타코마 레이니어스(시애틀 매리너스 산하)와의 더블헤더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김혜성은 이날까지 그 기세를 이어갔다.

당시 김혜성은 더블헤더에 모두 출전해 8타수 3안타(1홈런) 4타점 2도루 2득점으로 활약했다.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1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을 때려내는 등 4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을 올렸다. 3경기 연속 안타 생산에 성공한 김혜성은 타율 0.264로 소속 하향했다.



투런포 키움 푸이그 지난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KBO리그 두산 베어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3회말 투아웃 주자 1루에서 키움 푸이그가 투런 홈런을 치고 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함평 골프 선수단, 전남체육대회 2연패

단체 1위·개인 정경호 1위...강권오·서효주 3위



함평군이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골프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함평군은 23일 "함평 골프 선수단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장성군 푸른솔 GC에서 열린 전남도민체전 골프 종목에서 단체전 1위와 개인전 임상을 달성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골프 선수단은 최종 2라운드 합계 447타로 단체전 1위를 기록했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정경호 선수가 2라운드 합계 148타로 1위, 강권오 선수가 149타로 3위를 차지했다. 여자 개인전에서 서효주 선수가 153타로 3위에 입상하며 지

난해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박종희 함평군체육회장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함평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 체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군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선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기량을 뽐내서 함평군을 널리 알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18일부터 4일간 장성군에서 열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314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골프, 축구, 씨름 등 22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함평=지대만 기자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